

2026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KNN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03.25(수)	KNN 대회의실	11명 /13명	9	0	20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의구, 강문기, 강정규, 김덕열, 김정환,
김홍준, 복성경, 송연익, 송수진, 이덕환, 임수정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이오상(대표이사), 김호진(경영본부장), 전성호(제작편성본부장),
추종탁(뉴미디어제작본부장), 김성기(보도국장), 안의섭(기술국장),
국주호(영상제작국장), 허민경(제작국장), 이근호(편성라디오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1	2	1	2	6	0	6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6	0	0	6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기타	<p>[해양 수산 TV 채널]</p> <p>지역 방송사로서 해양 관련 뉴스와 정보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공들여 제작했던 질의 콘텐츠를 2차 가공해 새롭게 알리려는 시도들이 잘 녹아있는 이번 채널 개설은 매우 의미 있고 발빠른 행보라고 평가됨.</p> <p>기존에 '해양수산 TV' 같은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민은 물론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음.</p> <p>특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 오면서 새롭게 문을 연 채널이라 주위에서 언급이 많음. 시의적절한 행보를 보여준 만큼 내용 면에서도 더욱 알찬 구성을 갖춰나갔으면 좋겠음.</p>	<p>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시청자들의 니즈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음.</p> <p>'이런 영상이 인기가 있을까?' 생각했던 콘텐츠가 의외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함. 뉴스 채널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으나 '해양수산 TV 채널'로 가져가니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 큰 힘을 얻고 있으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김.</p> <p>과거부터 해양 관련 자료가 많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많음.</p> <p>이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청자들이 해양 수산 분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26.3월
기타	<p>쇼츠 제목을 보면 다소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쇼츠를 한국 소식으로 알고 들어왔으나 해외 영상인 경우가 있음.</p> <p>흔동되지 않도록 제목에 해외라는 표기를 따로 하면 이해도 쉬울 것 같음.</p>	<p>여러 사람이 만들고 있다 보니 일일이 다 확인이 어려워 선정적이거나 조회수를 지나치게 노리는 영상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데스킹 과정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p> <p>앞으로 더 줄여나가며 개선하겠음.</p>	'26.3월
교양	<p>[지역 유산 아카이브 오래된 미래]</p> <p>부산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추억이 있을 것 같은 창립 60년 된 영광도서 영상을 보며 책임을 강조하는 창립자의 말에 가슴이 따듯해졌음.</p> <p>영상과 내용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칭찬의 박수를 보냄.</p> <p>그러나 지역 유산 아카이브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에서 '아카이브'라는 용어의 접근성이 어려워 찾아보니 기록 보관소의 의미로 사용되는 외래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외래어 사용에 있어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겠음.</p> <p>※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p>	<p>아카이브 용어에 대해서 제목을 수정하거나 매 회차 설명을 하여 지적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p> <p>※3/28 국제시장 방송부터 매회 시작 전 아카이브 용어 설명 '가치 있는 역사적 기록물이나 문서, 데이터 등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수집, 정리, 분류하여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 또는 그 기록을 자체'로 안내되고 있음.</p>	'26.3월
보도	<p>[3/24 부산 모항 크루즈 첫 운영 보도]</p> <p>앞으로 부산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부산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보도였음.</p> <p>부산시와 경남의 방향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다루어 크루즈 산업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면 좋겠음.</p> <p>※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p>	<p>좋은 칭찬 감사하며,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4/8 '크루즈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보도'에서 크루즈 관광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의 내용 보도하였음.</p> <p>4/9 '부산시 글로벌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 보도에서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보도 하였음.</p>	'26.3월

스포츠	<p>개국 당시부터 스포츠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는데 특히 야구 중계와 롯데자이언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지역민과 야구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음.</p> <p>그러나 최근 스포츠에 대한 언급 자체가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임.</p> <p>롯데자이언츠와 NC다이노스 야구팀의 경기 영상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상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짐.</p> <p>하이라이트를 제작해 뉴스에서 짧게라도 소식을 전하거나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면 자연스럽게 스포츠 팬들의 유입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p>	<p>야구는 3월 28일 시즌 개막에 맞춰 매일 아침 NC다이노스와 롯데자이언츠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고 있음.</p> <p>축구의 경우 부산 경남 지역에 세 팀이 K2리그에 소속되어 있음.</p> <p>지역 축구 열기를 복돋우고 붐업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이라이트 영상도 준비하고 있음.</p>	'26.3월
교양	<p>[굿모닝 투데이]</p> <p>'셰프의 발견' 코너에서 소개된 가장 한식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 깊게 보았음. 한식을 글로벌 미식 수준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지역 상공인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함께 힘써주면 좋겠음.</p> <p>'사운드 워킹'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시청함.</p> <p>요즘 새로운 걸기 방식으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p> <p>단순히 길을 걷는 것을 넘어 자연의 소리를 통해 공간과 자신을 인식하는 힐링 걸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자와 전문가가 함께 걸으며 잘 보여줬음. 하지만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구체적인 안내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음.</p> <p>프로그램 신청과 참여, 관광객들에게 어떤 경로로 소개하면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조금 더 제공되었으면 좋겠음.</p> <p>※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p>	<p>좋은 칭찬 감사하며,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큰 경험을 하는 그런 코너였음.</p> <p>특이하기도 하고 생소한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 좋은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음.</p> <p>공중파 방송이다 보니 특정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사거나 심의상 곤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공적인 영역 외에는 상세히 안내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p> <p>※ 다만 시청자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경우에는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을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도록 안내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도록 하겠음.</p>	'26.3월
총 건수		6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26.3~2026.3)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강혜지	2002.09.04	프리랜서	임기만료	1달
김유정	2006.06.16	학생	임기만료	1달
박준영	2006.03.15	학생	임기만료	1달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전문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성별/생년 (총선임기간)
위원장	강의구	(현)부산영사단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경제단체	남/1946 (20.03.01.~27.03.26)
부위원장	이준홍	세무회계 해인 대표 세무사	부산지방세무사회	경제단체	남/1965 (22.01.01.~27.03.26)
위원	강문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한국기술사회	과학 기술 단체	남/1965 (25.03.26~27.03.26)
위원	강정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학부모단체	남/1967 (23.01.01.~27.03.26)
위원	김덕열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사)부산방송영상포럼	청소년 단체	남/1980 (25.03.26~27.03.26)
위원	김정환	부산 YWCA 사무총장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64 (25.03.26~27.03.26)
위원	김흥준	(주)무지개약품 대표이사	부산울산경남 의약품유통협회	경제단체	남/1987 (25.03.26~27.03.26)
위원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KNN 노동조합	노동단체	여/1971 (25.03.26~27.03.26)
위원	송수진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학부모단체	여/1990 (25.03.26~27.03.26)
위원	송연익	(주)에스엠홀딩스 대표이사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남/1969 (23.01.01.~27.03.26)
위원	이덕환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74 (25.03.26~27.03.26)
위원	이철희	단디병원 병원장	양산시의사회	과학 기술 단체	남/1978 (22.01.01.~27.03.26)
위원	임수정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찾기 조직위원	(사)자연의 권리찾기	소비자보호단체	여/1973 (23.01.01.~27.03.26)
변 동 사 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p>[해양 수산 TV 채널]</p> <p>지역 방송사로서 해양 관련 뉴스와 정보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공들여 제작했던 양질의 콘텐츠를 2차 가공해 새롭게 알리려는 시도들이 잘 녹아있는 이번 채널 개설은 매우 의미 있고 발빠른 행보라고 평가됨.</p> <p>기존에 '해양수산 TV' 같은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민은 물론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음.</p> <p>특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 오면서 새롭게 문을 연 채널이라 주위에서 언급이 많음. 시의적절한 행보를 보여준 만큼 내용 면에서도 더욱 알찬 구성을 갖춰나갔으면 좋겠음.</p>	<p>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시청자들의 니즈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음.</p> <p>'이런 영상이 인기가 있을까?' 생각했던 콘텐츠가 의외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함. 뉴스 채널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으나 '해양수산 TV 채널'로 가져가니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 큰 힘을 얻고 있으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김.</p> <p>과거부터 해양 관련 자료가 많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많음.</p> <p>이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청자들이 해양 수산 분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		
기타	<p>쇼츠 제목을 보면 다소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쇼츠를 한국 소식으로 알고 들어왔으나 해외 영상인 경우가 있음. 혼동되지 않도록 제목에 해외라는 표기를 따로 하면 이해도 쉬울 것 같음.</p>	<p>여러 사람이 만들고 있다 보니 일일이 다 확인이 어려워 선정적이거나 조회수를 지나치게 노리는 영상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데스크킹 과정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p> <p>앞으로 더 줄여나가며 개선하겠음.</p>	○		
교양	<p>[지역 유산 아카이브 오래된 미래]</p> <p>부산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추억이 있을 것 같은 창립 60년 된 영광도서 영상을 보며 책임을 강조하는 창립자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음.</p> <p>영상과 내용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칭찬의 박수를 보냄.</p> <p>그러나 지역 유산 아카이브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에서 '아카이브'라는 용어의 접근성이 어려워 찾아보니 기록 보관소의 의미로 사용되는 외래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외래어 사용에 있어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겠음.</p> <p>※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p>	<p>아카이브 용어에 대해서 제목을 수정하거나 매 회차 설명을 하여 지적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p> <p>※3/28 국제시장 방송부터 매회 시작 전 아카이브 용어 설명 '가치 있는 역사적 기록물이나 문서, 데이터 등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수집, 정리, 분류하여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 또는 그 기록물 자체'로 안내되고 있음.</p>	○		
보도	<p>[3/24 부산 모항 크루즈 첫 운영 보도]</p> <p>앞으로 부산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부산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보도였음.</p> <p>부산시와 경남의 방향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다루어 크루즈 산업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면 좋겠음.</p> <p>※시청자 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p>	<p>좋은 칭찬 감사하며,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4/8 '크루즈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보도'에서 크루즈 관광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의 내용 보도하였음.</p> <p>4/9 '부산시 글로벌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 보도에서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보도 하였음.</p>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스포츠	<p>개국 당시부터 스포츠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는데 특히 야구 중계와 롯데자이언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지역민과 야구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음.</p> <p>그러나 최근 스포츠에 대한 언급 자체가 다소 줄어들어 것처럼 보임.</p> <p>롯데자이언츠와 NC다이노스 야구팀의 경기 영상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상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짐.</p> <p>하이라이트를 제작해 뉴스에서 짧게라도 소식을 전하거나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면 자연스럽게 스포츠 팬들의 유입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p>	<p>야구는 3월 28일 시즌 개막에 맞춰 매일 아침 NC다이노스와 롯데자이언츠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고 있음.</p> <p>축구의 경우 부산 경남 지역에 세 팀이 K2 리그에 소속되어 있음.</p> <p>지역 축구 열기를 북돋우고 붐업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이라이트 영상도 준비하고 있음.</p>	○		
교양	<p>[굿모닝 투데이]</p> <p>‘셰프의 발견’ 코너에서 소개된 가장 한식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 깊게 보았음. 한식을 글로벌 미식 수준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지역 상공인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함께 힘써주면 좋겠음.</p> <p>‘사운드 워킹’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시청함. 요즘 새로운 걷기 방식으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p> <p>단순히 길을 걷는 것을 넘어 자연의 소리를 통해 공간과 자신을 인식하는 힐링 걷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자와 전문가가 함께 걸으며 잘 보여줬음. 하지만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구체적인 안내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음.</p> <p>프로그램 신청과 참여, 관광객들에게 어떤 경로로 소개하면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조금 더 제공되었으면 좋겠음.</p> <p>※시청자 뿐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p>	<p>좋은 칭찬 감사하며,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큰 경험을 하는 그런 코너였음.</p> <p>특이하기도 하고 생소한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 좋은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음.</p> <p>공중파 방송이다 보니 특정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사거나 심의상 곤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공적인 영역 외에는 상세히 안내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p> <p>※ 다만 시청자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경우에는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을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도록 안내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도록 하겠음.</p>	○		